

윤석구 · 윤석남 2인전
《뉴 라이프(A New Life)》



(좌) 윤석구, <A New Life (과일들)>, 2020, 섬유 강화 플라스틱, 천, 60x240x240cm

(우) 윤석남, <메마른 땅에 물을 주고>, 2002, 종이에 색연필, 45x30cm

전시 제목 : 윤석구 · 윤석남 2인전 《뉴 라이프》
전시 기간 : 2024년 4월 26일(금) – 5월 25일(토)
전시 장소 : 학교재 본관, 학교재 오름(online.hakgojae.com)
출 품 작 : 회화, 조각 총 110여 점

○ 담 당	신리사 lisashin@hakgojae.com
○ 문 의	02-720-1524~6
보도자료	www.webhard.co.kr (ID: hakgojaeart, PW: guest) 보도자료 폴더 내 20240426-0525_윤석구 윤석남 2인전, 뉴 라이프: A New Life

1. 전시 개요

윤석남(尹錫男, 1939-) 작가와 윤석구(尹石九, 1947-) 작가의 2 인전이 4월 26일에서 5월 25일까지 학교재에서 열린다. 윤석남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여성주의 작가이다. 조선시대 전설의 여류작가 허난설헌(1563-1589)의 생가에서 깨우침을 얻어, 생가에서 주운 나뭇가지에 조각도로 인물 형상을 새기고 붓으로 그려서 독자적인 조각을 제작했다. 독특한 조각작품에서 허난설헌이 돌아온 듯 되살아났고 한국 미술계는 찬사를 보냈다. 이후 어머니, 가족, 여성을 주제로 수많은 드로잉과 회화 작품을 선보였으며, 조각을 지속했다. 이 드로잉과 조각은 독자적 형식으로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삶과 의미가 체현되었기에 깊은 여운을 남긴다.

윤석구 역시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진혼의 의미로써 이야기를 쓴다. 전통적인 나무 조각을 고수했던 작가는 어느 날 조각 재료를 구하다 쓸모 있는 나무는 (작가에 의해) 채택되며, 그렇지 않은 나무는 버려지는 사실을 깨닫고 개탄했다고 한다. 곧고 굽게 자라지 않아도 나무이거늘, 가늘고 퍼진 나무는 골라서 도록하는 것은, 조각가의 작업 방식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예술가의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버려진 나무를 작업실에 가져와 가장 화려한 천(옷감)을 입혔다. 화려한 천은 동시대 문명을 상징한다. 문명으로써 상처 입은 나무를 위무하는 것, 즉 죽은 사물의 혼을 달래는 행위를 자기 예술의 본령으로 삼은 것이다. 이때가 2000년대 초반이었다. 이후 윤석구는 버려진 나무에서 버려진 사물로 시야를 확장했다. 폐기물, 가령 의자·소파·화장대·자전거·자동차에 천을 감쌌다. 사물에 형감을 감싸는 행위는 하나의 의식이 되었으며 이로써 물질과의 화해를 선언했다. 작가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나아가 직접 형상을 만들어 천을 감쌌고, 일상 사물에 깃든 아름다움을 찬미했다. 버려진 사물을 찾아서 새 생명을 부여하여 재탄생시키는 작업 과정은 자본주의적 생산과 소비의 순환이 일으키는 생명·생태·환경의 파괴에 대하여 경종을 울리려는 의도가 숨어있다.

윤석남과 윤석구는 친남매이다. 윤석남은 해방 전 혼돈의 시대에, 만주에서 태어나 온갖 역경을 겪고 극복하여 여성으로 사는 삶의 의미를 찾았고, 그 의미를 미술로 표현했다. 윤석구는 인간과 대상(세계)이 화해하는 방법을 모색해 왔다. 속박된 일상 사물의 구휼(救恤), 그것이 윤석구가 가는 길이다. 두 작가의 마음속 깊은 곳에 진혼가(鎮魂歌)가 흐른다.

두 작가의 작품은 진혼의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전시에서 윤석남이 천착해 온 여성주의 예술의 진가는 배가되고 윤석구의 '레디메이드' 혹은 '발견된 사물(found object)'의 의미는 증폭된다.

2. 전시 소개

1) 윤석남: 시적 드로잉의 진수와 여전히 진행 중인 여성의 고난

윤석남의 드로잉 작품은 완성작을 위한 밑그림이나 습작이 아니라 여성주의적 성찰과 꾸준한 독서를 통해 축적된 문학성이 배어나는 글과 그림의 예술적 조합으로 이뤄진다. 팔십 중반의 윤석남에게 책 읽기는 여전히 그림 그리기와 더불어 몸에 익은 습관처럼 빼놓지 않고 행하는 하루의 일과다. 여러 단계의 복잡한 제작 과정과 함축적 서사를 담은 입체 작업과 비교해, 자발적으로 떠오르는 이야기나 형상을 단시간에 즉흥적으로 그리고 글귀를 써넣은 그의 드로잉은 새로운 형식의 그림일기를 연상시킨다. 그것은 여성으로서 자전적 경험과 생각들, 친밀한 인간관계에 대한 단상들, 문학에서 떠오른 영감 등 시간과 공간이 자유롭게 교차하며 자발적으로 흘러나온 시적 성격이 강하다. 유머와 재치가 넘치고 공감과 상상력을 자극하면서도 직관적인 독해가 가능한 윤석남의 드로잉은 묵직한 현실 문제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지게 하는 힘이 있다.

2) 윤석구: 생태·환경·삶의 의미와 조각이 나아가야 할 길

“새로운 삶”, “재탄생” 등으로 번역되는 “A New Life”는 윤석구 최근작의 주제이자 작업 개념, 작업 방법 전반을 아우르는 용어이다. 작가가 생각하는 “A New Life”의 의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다양한 색과 무늬를 지닌 천의 시각적 특성을 살려서 상처를 품고 있는 버려진 대상들을 천으로 감싸줌으로써 새로운 생명으로 재탄생시키는 의식을 행하고자 했다. 그런 작품을 통해 그는 궁극적으로 물질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자 했다.

그의 신작에서 작업의 대상은 두 가지 계열로 나뉘는데, 작가의 기존 작품을 ‘개작’한 것과 주변에서 쓰다 버린 레디메이드를 재활용한 것이다. 윤석구가 본인의 기존 작품에 각종 천을 붙여 원작의 외양과 의미를 소거하고 새로운 작품으로 탈바꿈시키는 과감한 아이디어는 매우 흥미를 자아낸다. 그는 1970-80 년대에 새로운 조각용 재료로 주목받던 합성수지(FRP)를 위주로 나무, 테라코타 등의 재료를 사용해 실존적 상황에 놓인 인간의 고뇌와 고통을 거칠고 왜곡된 대형 인체로 제작한 바 있다. 생명공학의 발전이 가져올 유토피아적 미래에 대한 비전과 비판이 충돌하고 유전자 조작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1990 년대 중반에는, 합성수지로 매끈하게 주조한 대형 과일과 채소에 인공적인 색을 칠해 자연의 변종과 신품종 개량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물질적 욕망을 추동하는 자본주의를 비판하기도 했다.

3. 작품 소개

윤석구



〈A New Life
(빌렌도르프의 비너스)〉
2022
섬유 강화 플라스틱, 천
90x36x32cm

인류 최초의 조형물(조각)은 빌렌도르프의 비너스로 추정된다. 구석기 사람들이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면서 조각했다고 한다. 구석기 사람들의 기원은 오늘날 사람들의 욕망과 다르다. 절실한 생존을 기원한 것이었으며 수렵과 채집으로 얻은 음식에 감사했고 지극한 행복을 느꼈을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넘쳐나는 음식을 생명처럼 소중히 대하지 않고 단순한 소비재로 여기고 만다. 유전공학으로 건강을 위협하는 글로벌 식품회사, 강토를 오염시키는 산업 폐기물, 해마다 넓게 개척해야 하는 쓰레기 매립지와 이를 저지해야 하는 각 지자체와 각 부처의 총성 없는 전쟁은 우리를 지치게 한다. 빌렌도르프는 대량으로 생산되는 형겅에 싸여있다. 갖가지 식물의 잎과 꽃잎을 형상하는 형겅에 싸여있는 빌렌도르프의 비너스의 얼굴은 고민에 차 있는 현대인의 얼굴로 대체되어 있다. 어디로 갈지 모르고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남기는 작품이다.



〈A New Life (남성)〉
2019
섬유 강화 플라스틱, 천
197x192x42cm

콜라주는 고대 그리스어 'kolla'가 어원이며 '풀'이라는 뜻의 명사로 나중에 붙인다는 뜻이 되었다. 서로 다른 속성의 이미지나 사물을 함께 붙여 현란한 형식과 중의적 의미를 동시에 얻기 위해 사용되었다. 20세기 초반 다다와 초현실주의 작품에서 두드러진다. 윤석구 역시 미술사의 오랜 전통에 물을 대고 있다. 작가는 합성수지(FRP)로 남자의 인체를 만들었으며 양팔을 벌리고 있다. 이는 영화 「박하사탕」에서 설경구가 열연했던 기차길의 명장면을 연상시키기도 하거니와 사실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전설적인 드로잉 〈비트루비우스적인 인간〉 혹은 〈인체 비례도〉의 레퍼런스를 차용하고 있다. 이 드로잉의 설명 글귀에 다빈치는 “자연이 낸 인체의 중심은 배꼽이다. 등을 대고 누워서 팔다리를 뻗은 다음 컴퍼스 중심을 배꼽에 맞추고 원을 돌리면 두 팔의 손가락 끝과 두 발의 발가락 끝이 원에 붙는다.”라고 쓰는 등 중세 시기를 극복하고 고대 그리스의 합리적 이성주의를 부활하고자 하는 열망을 대변하고 있다.

윤석구는 합리성을 표방하는 과학주의의 극단을 비판하고 있다. (과학과 과학주의는 다르다). 아우슈비츠를 연출한 연후에 자본주의와 무한경쟁을 넘어 인간의 소외와 자연의 파괴를 일삼게 된 과학주의 정신의 폐단은 많은 문제를 발생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작가는 서로 다른 종(種)의 유전자가 뒤섞이고 조작되는 의미로 식물 콜라주 이미지를 채택했다.

윤석남



<공양>

2001

종이에 색연필

45x30cm

불교에서 속된 자아(에고)와 참된 자아(진여)를 나누고, 유가에서 기질지성(氣質之性)과 본연지성(本然之性)을 나누어 우리의 본질을 설명하듯이, 윤석남의 <공양>에서 주인공 여성은 화면 왼편에 가는 줄에 의지하고 있는 그네 위로 자리하고 있다. 모습이 두 개의 모습으로 나누어져 있다. 『서경(書經)』의 「대우모(大禹謨)」에도 “사람의 마음-욕정(欲情)에서 나온 마음-은 위태롭기만 하고, 도를 지키려는 마음-의리(義理)에서 나온 마음-은 극히 희미한 것이니, 오직 정밀하고 한결 같이 살펴야 비로소 그 중정(中正)을 잡을 수 있다(人心惟危, 道心惟微, 惟精惟一, 允執厥中).”고 가르친다.

주인공의 황색 부분은 속된 자아이다. 소심하게 위축되어 자기만을 돌본다. 자기를 지탱할 발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이에 반해 주인공의 청색 부분은 참된 자아로서 관대하고 정이 넘친다. 길고 강한 팔은 잠재되었던 우리 도덕이 발현되었을 때의 위대함을 상징한다. 주인공은 감과 꽃송이를 상서로운 학(鶴)에게 공양하고 있다. 학은 신성을 뜻하며 신성에의 의지는 위태로운 그네 같은 우리 인생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감 사세요>

2001

캔버스에 혼합매체

45x30cm

하이데거는 시의 위대성을 가리켜 “간단한 것의 장려(壯麗)함(splendor of the simple)”이라고 말했다. 우리 옛 그림도 간오(簡奧)라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다. 간단하지만 깊다는 뜻이다. 우리 옛 그림은 시처럼 함축적이었으며 옛 선비는 시를 그림처럼 아름답게 썼다. 윤석남은 우리 전통의 시적 정신과 회화의 길을 여전히 지킨다.

우리는 매일 마트나 대형 슈퍼마켓에 들린다. 딱히 사야 할 이유도 없이 습관처럼 냉장고에 식품을 채운다. 열흘 정도 지나면 먹지 못한 채소와 과일, 우유와 두부를 무심코 버린다. 마트와 슈퍼마켓은 들어가기는 쉽고 나가는 어려운 구조를 취하고 있다. 반대로 영화관은 들어가기는 어렵고 나오기는 쉬운 구조를 취하고 있다. 마트의 구조는 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하나라도 더 사게 된다. 우리가 쉽게 영화관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는 스토리와 시간의 무게감 때문이다. <감 사세요>에서 할머니는 영화관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손가락이 여섯 개나 된다. 고된 삶에 손이 왜곡될 정도이다. 목과 등은 굽었고 삶의 무게는 돌로 형상화되어 안 그래도 굽은 몸을 짓누르고 있다. 감, 그것은 오늘 하루의 생존을 의미하며, 안 그래도 무거운 삶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그 무게를 누군가 덜어주어야 한다. 하나 사면 된다. 그러나 우리는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을지언정 길가의 할머니 물건은 사지 않는다. 그 삶의 무게에 동참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 아가리 둥글넓적한 그릇에 오색찬란한 보옥(寶玉)들이 놓여있다. 작가는 말한다. “당신이 사주는 감은 덕(德)이 되어서 나중에 보옥으로 되돌아갈 것이에요.” 이것이 작가의 마음이다.

4. 작가 소개

윤석구는 1947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조각과 학위를 받았다. 이후 독일 쾰른미술대학 조각과 마이스터 과정을 졸업했으며, 1987년부터 2013년까지 원광대학교 교 조형예술디자인대학 미술과 교수로 재직했다. 인사아트센터(2011), 큐브스페이스(2005), 한원미술관(1998), 서울갤러리(1989), 쾰른 아시아센터(1985)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주요 단체전으로는 《독섬, 독도전》(2006, 전북도립미술관, 전주), 《나의 계곡은 푸르렀다》(2006, 일민미술관, 서울), 《국제조각 교류전》(2005, 원광대미술관, 익산), 《자본주의 - 문화 - 인간 전》(2004, 서신갤러리, 전주), 《한국현대조각회전》(2000, 영은미술관, 광주) 등이 있다. 후쿠오카 미술관 (후쿠오카, 일본), 교보빌딩 (익산), 익산 조각공원 (익산), 군산 바다 조각공원 (군산)에서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윤석남은 1939년 만주에서 태어났다. 40세의 나이에 작가로서의 삶을 시작하여 아트 스튜디오 리그 오브 뉴욕과 플랫폼 인스티튜트에서 학위를 수료했다. 대구미술관(2023), OCI 미술관(2019), 서울시립미술관(2015), 아르코미술관(2008) 등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주요 단체전으로는 제 3회 제주비엔날레 《움직이는 달 - 다가서는 땅》(2022, 제주현대미술관, 제주), 《이마 픽스 2021》(2021, 일민미술관, 서울), 《한국 초상화 기법의 유사성과 그 족적》(2021,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 샌프란시스코, 미국), 《세상에 눈뜨다: 아시아 미술과 사회 1960s-1990s》(2019,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세계의 초상화들: 한국》(2018, 내셔널포트레이트갤러리, 스미소니언 박물관, 워싱턴 D.C., 미국) 등이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경기도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부산시립미술관, 아르코미술관, 금호미술관, 리움미술관 등 국내 기관과 더불어, 테이트 컬렉션(런던, 영국), 오리건주립대 조던슈니처미술관(오리건, 미국), 퀸즈랜드 미술관(브리즈번, 호주), 타이베이 시립미술관(타이베이, 대만), 후쿠오카시 미술관(후쿠오카, 일본), 도치기현립미술관(우츠노미야, 일본) 등 전 세계 우수 미술관에서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2022년 제 23회 이인성미술관을 받았다.

5. 전시 서문

*서문에서 4단어 이상 발췌 시 글쓴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학고재로 문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석남, 윤석구 남매의 '살리는' 예술

김현주 | 미술사학자, 전 추계예술대학교 교수

윤석남과 윤석구는 남매지간으로 각자의 예술 작업에 정진해 온 미술가이다. 근대 영화감독이자 소설가, 연출가인 윤백남과 원정숙 부부의 여섯 자녀 중 윤석남(1939-)은 둘째, 윤석구(1947-)는 다섯째로 8 살 터울이다. 이 집안에서는 미술, 음악, 영화 등 다양한 예술 분야의 종사자들이 여러 명 배출되었다. 미술가로는 한국 페미니즘 미술의 초석을 다지고 그 길을 꾸준히 개척해 온 선구적 작가 윤석남이 익히 알려져 있고, 남동생 윤석구 역시 평생 미술에 헌신해 온 조각가이다. 서로의 예술을 지지하되 간섭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작업해 온 탓인지 두 작가가 남매란 사실은 미술계에서 아는 사람만 아는 정도다.

이번에 학고재가 기획한 윤석남, 윤석구 2 인전은 공식적으로 남매가 함께 갖는 첫 전시다. 지금까지 두 작가가 미술로 뭔가를 도모한 사례는 2012년 전북 익산국제돌문화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제작한 조각이 유일하다. <휴식>이란 제목의 이 조각은 윤석남이 제안한 개념과 드로잉에 근거해 윤석구가 제작한 협업의 결과물이다. 윤석남 작품의 주요 소재인 소파와 개, 그리고 당시 윤석구의 관심사이던 나무를 상징하는 세 가지 형상을 익산에서 생산되는 화강암의 일종인 황등석으로 깎아 익산 중앙체육공원에 영구 설치한 작품이다.

윤석남은 좋은 전시 기회가 있을 때면 늘 후배 여성작가들과 공유하며 동반 성장을 도모해 왔는데, 본 전시에서는 최근 몇 년간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남동생 윤석구의 독특한 미발표 작품이 돋보이도록 조용히 뒤로 한걸음 물러나 있다. 평문을 준비하며 나는 평상시 서로의 작업에 관해 별로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다는 두 사람을 따로 만나 서로의 작업에 관한 생각을 물어보았다. 윤석남은 조용한 성격의 동생이 원광대학교에서 교육과 작업을 병행하느라 바빠 사는 것이 안타까웠는데, 은퇴 후 새로운 작업을 찾아 도약하는 모습에 안도하며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한편 윤석구는 "누님의 조각과 회화적인 것을 결합한 나무 작업에서 큰 감명을 받았다"고 회고했다.¹ 덧붙여 말하길 그림을 그리다 나무를 조각해 그 위에 형상을 그린 작업 방식은 획기적이고, 매체의 경계를 중요시하는 미술대학에서는 배울 수 없는 전통 파괴의 가능성을 지녔다며 윤석남의 작품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¹ 2024년 2월 20일 경기도 화성 소재 윤석남, 윤석구 작업실에서 인터뷰.

이번 전시에는 윤석남이 2000-2003년 사이에 그린 700여 점의 드로잉 중 선별한 96점과 윤석구의 미발표 신작 15여 점이 출품된다. 1990년대 초부터 나무를 다듬어 그 위에 여성 인물을 그린 조각과 레디메이드를 활용한 설치 작품에 몰입해 오던 윤석남은 2000년대 초 작업에 대한 고민을 풀어내거나 '그리기'에 대한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일정한 크기의 종이에 색연필과 연필을 이용해 수많은 드로잉을 남겼다. 2015년의 개인전 《윤석남♥심장》(서울시립미술관)에서 독립적인 작품으로 처음 소개된 드로잉은 다수의 전시에 출품되며 예술성을 인정받고 있다.

윤석남의 드로잉 작품은 완성작을 위한 밑그림이나 습작이 아니라 여성주의적 성찰과 꾸준한 독서를 통해 축적된 문학성이 배어나는 글과 그림의 예술적 조합으로 이뤄진다. 팔십 중반의 윤석남에게 책 읽기는 여전히 그림 그리기와 더불어 몸에 익은 습관처럼 빼놓지 않고 행하는 하루의 일과다. 여러 단계의 복잡한 제작 과정과 함축적 서사를 담은 입체 작업과 비교해, 자발적으로 떠오르는 이야기나 형상을 단시간에 즉흥적으로 그리고 글귀를 써넣은 그의 드로잉은 세로 형식의 그림일기를 연상시킨다. 그것은 여성으로서 자전적 경험과 생각들, 친밀한 인간관계에 대한 단상들, 문학에서 떠오른 영감 등 시간과 공간이 자유롭게 교차하며 자발적으로 흘러나온 시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므로 유머와 재치가 넘치고 공감과 상상력을 자극하면서도 직관적인 독해가 가능한 윤석남의 간결한 드로잉은 목직한 현실 문제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도록 하는 독특한 성격을 띤다.

제도 교육의 틀 밖에서 전업 작가의 길을 걸어온 윤석남과 달리, 윤석구는 엘리트 미술 교육 과정을 차근차근 밟으며 누나에 앞서 1978년 첫 개인전을 열고 조각가로서 화단에 등단했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는 홍익대학교의 김정숙 교수 밑에서 조각을 전공한 후 독일 유학을 다녀왔고, 1980년대까지 3차례의 개인전을 통해 실존적 상황에 직면한 고통받는 인체 조각을 발표해 주목받았다. 그는 1987년부터 원광대학교에서 26년간 교직에 종사하며 작업을 병행해 오다, 2013년 퇴직 후 경기도에 정착해 온전히 작업에 시간을 쏟았다. 그런 모습을 눈여겨보던 윤석남이 2018년 화성 작업실의 한 공간을 동생에게 내어주며 이곳은 둘의 창작의 산실이 되었다.

윤석구의 신작(新作)을 설명하는 키워드로는 '천 작업', '천 싸기', '개작', '레디메이드'를 꼽을 수 있는데, 그중 핵심 키워드는 '천 작업' 또는 '천 싸기'이다.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천 조각 콜라주'와 '천으로 싸기'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새로운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그가 조각에 천의 모티브를 처음 도입한 것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학 재직 시 작업실 근처에서 숲을 벌목하며 쓸모없는 나무를 버리는 현장을 목격한 뒤, 쓸모에 따라 버려지는 생명을 보듬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상징적 의식으로서 나무를 천으로 싸는 예술적 행위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 후 골판지로 인물 형상을 만들고 천을 붙이는 작업으로 발전했고, 2019년 <A New Life (남성)>을 기점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본 전시에 출품된 모든 작품에는 대상을 지시하는 부제와 더불어 "A New Life"라는 제목이 주어지고, 전시 제목도 동일하다. "새로운 삶", "재탄생" 등으로 번역 가능한 "A New Life"는 윤석구 최근작의 주제이자 작업 개념, 작업 방법 전반을 아우르는 용어이다. 작가가 생각하는 "A New Life"의 의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다양한 색과 무늬를 지닌 천의 시각적 특성을 살려서 상처를 품고 있는

버려진 대상들을 천으로 감싸줌으로써 새로운 생명으로 재탄생시키는 의식을 행하고자 했다. 그런 작품을 통해 그는 궁극적으로 물질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옳은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자 했다.²

그의 신작에서 작업의 대상은 두 가지 계열로 나뉘는데, 작가의 기존 작품을 '개작'한 것과 주변에서 쓰다 버린 레디메이드를 재활용한 것이다. 윤석구가 본인의 기존 작품에 각종 천을 붙여 원작의 외양과 의미를 소거하고 새로운 작품으로 탈바꿈시키는 과감한 아이디어는 매우 흥미를 자아낸다. 그는 1970-80 년대에 새로운 조각용 재료로 각광받던 합성수지(FRP)를 위주로 나무, 테라코타 등의 재료를 사용해 실존적 상황에 놓인 인간의 고뇌와 고통을 거칠고 왜곡된 대형 인체로 제작한 바 있다. 생명공학의 발전이 가져올 유토피아적 미래에 대한 비전과 비판이 충돌하고 유전자 조작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1990 년대 중반에는, 합성수지로 매끈하게 주조한 대형 과일과 채소에 인공적인 색을 칠해 자연의 변종과 신품종 개량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 물질적 욕망을 추동하는 자본주의를 비판하기도 했다.

개작한 작품으로는 <A New Life (사과 2)>(2019), <A New Life (과일들)>(2020), <A New Life (바나나)>(2021), <A New Life (빌렌도르프의 비너스)>(2022) 등 다수가 있다. 일례로 <A New Life (인간 1)>과 <A New Life (인간 2)>(2020)는 1987 년에 제작한 <人間(인간)의 굴레 I, II>를 개작한 것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비트루비안 맨>을 참조한 1987 년의 원작은 세계의 척도로서 인체를 과학적으로 탐구한 다빈치의 개념 대신, 원형의 굴레에 갇혀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보편적 상황을 남자의 앞뒤 인체 조각을 통해 은유적으로 재현했다. 윤석구는 그 남자 조각의 뒷면을 각종 패턴이 찍힌 푸른 계열의 천 조각으로, 앞면을 붉은 계열의 천 조각으로 이어 붙여 원작에 내재한 비장함을 제거하고 마치 자동동체의 인물상처럼 조형적으로 탈바꿈시켰다. <A New Life (사과 2)>(2019)는 1998 년에 발표한 <신종(新種)> 연작의 대형 사과 조각을 개작한 것이다. 매끈하게 자른 사과의 흰 단면은 꽃무늬 또는 동심원의 추상적 패턴의 알록달록한 천 조각으로 뒤덮이고 사과 껍질 부분과 커다란 두 개의 씨는 심장처럼 붉은 천으로 싸여있다. 오이, 가지, 감자 등 대형 야채는 그와 유사한 색의 단일한 천으로 싸여있다. 개작한 작품들은 원작의 기본 형태나 자세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 흔적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다. 그러나 덧붙인 천 작업으로 인해 원작에 부여된 본래의 의미는 탈각되고 팝적인 유희성과 조형미가 강화된다.

아파트 단지에서 내다 버린 폐기물이나 쓸모없이 방치된 레디메이드를 재활용해 천으로 감싼 작업의 대상은 가구(의자, 테이블, 소파), 어린이 놀이 기구(자전거, 자동차), 예술적 기물(미술 교육용 석고상, 이젤) 등이다. 이런 계열의 작품 대부분은 그 대상과 분위기에 어울리는 적절한 색과 문양을 가진 천으로 싸여있다. 어린이용 자전거와 자동차는 동그랗고 화려한 문양의 형광색 천으로 감싸서 어린 아이의 발랄하고 역동적인 움직임과 팝적 유희와 연결된다. <A New Life (화해)>에서는 인간의 대립과 화해의 기초를 흑백의 의자와 두 가지 색이 조화를 이룬 테이블로 시각화하였다. 한편 <A New Life (거울)>는 천으로 싼 이젤과 그 위에 세워진 테두리만 남은 거울,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거울 안에

² 2024 년 2 월 초에 작성한 윤석구 작가 노트 참조.

간힌 듯한 인물 조각의 형상이 이질적이고 그로테스크한 감각을 유발한다. 특히 이 작품은 인체 조각의 일부를 그대로 남겨둠으로써 미술에서 사라지지 않는 순수미술과 공예의 위계적 관계를 환기하기에 더욱 시선을 끈다.

사실 천으로 싸는 윤석구의 작업 방식이 독창적인 것은 아니다. 동시대 미술에서 천을 사용한 예술은 비일비재하다. 천을 이용한 동시대의 예술은 순수미술과 수공예를 구별하고 순수미술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해 온 미술의 전통에 도전했던 1970 년대의 페미니즘 미술과 P & D(Pattern & Decoration) 운동의 역사에서 시작되었으므로, 그런 역사에 빛을 지고 있다. 특히 천 작업처럼 장식미술에 낮은 지위를 부여했던 입장에 내재한 성차별주의적 편견을 처음으로 공론화하고 직물 무늬를 창작의 핵심적 요소로 적극적으로 끌어들이 예술 장르 간의 위계를 전복하고자 했던 페미니스트 작가들이 그 변화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아직도 순수미술과 수공예의 위계적 관계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천 작업은 페미니스트를 위시한 수많은 예술가에 의해 동시대 미술의 중요한 창작 방법으로 자리 잡았다. 윤석구의 천 작업은 바로 이런 맥락 속에 자리한다. 그의 작품은 다양한 색과 문양을 갖는 천의 시각적 특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 미학적이고, 동시에 물질만능주의를 비판하고 성찰하는 사회적인 메시지를 명확하게 갖추고 있기에 단순히 장식적인 오브제가 아니라 의미 있는 예술작품이 된다

윤석남은 평등 사회 구현이라는 여성주의적 비전을 바탕으로 여성사를 발굴하고 여성에게 목소리를 되찾아주는 작업을 추구해 왔고, 윤석구는 물질만능주의 시대에 옳은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보편적인 질문에 답을 찾고자 했다. 두 작가가 거쳐온 예술적 경로와 작품의 지향점은 비록 다르지만, 자본주의를 성찰하고 인간과 자연을 보듬고 살피는 태도는 남매가 매우 흡사하다는 생각이 든다. 윤석남과 윤석구가 반평생 동안 일궈온 예술의 성격을 하나의 단어로 규명해야 한다면 누군가를, 혹은 무엇인가를 “살리는” 예술이라고 부르길 제안한다.

6. 작가 약력: 윤석구

윤석구

1947 서울 출생

현재 경기도 화성에서 작업

학력

1985 독일 쾰른 국제디자인대학 조각과 마이스터 졸업

1980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대학원 조각과 졸업

1975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 졸업

재직

1987-2013 원광대학교 조형예술디자인대학 미술과 교수

개인전

- 2011 나무는 나에게 작품까지 주었다, 인사아트센터, 서울
- 2005 무지개, 큐브스페이스, 서울
- 1998 신종, 서신갤러리, 전주
신종, 한원미술관, 서울
- 1989 인간의 굴레, 서울갤러리, 서울
- 1985 밧줄과 미이라, 아시아센터, 쾰른, 독일
- 1978 밧줄, 청년미술회관, 서울

단체전

- 2024 윤석구 · 윤석남 2인전: 뉴 라이프, 학고재, 서울
- 2011 원광대학교 미술관 건립기금 마련전, W갤러리, 익산
- 2006 보물섬을 지켜라-독섬·독도, 전북도립미술관, 전주
나의 계곡은 푸르렀다, 일민미술관, 서울
- 2005 개교 64주년 기념 제1회 한·중 교수작품 교류전, 원광대미술관, 익산
- 2004 자본주의 문화 인간, 서신갤러리, 전주
- 2003 전국미술대학교수 10인 초대전, 단원전시관, 안산
- 2002 미술로 보는 월드컵, 조선일보 미술관, 서울
한국현대조각회전, 조선화랑, 서울
- 2000 MANIF SEOUL, 예술의 전당, 서울
한국현대조각회전, 영은미술관, 광주
전북조각회전, 민촌아트센터, 전주
- 1999 한국현대조각회 30주년전 정통과 진보의 계통적 창작, 미술회관, 서울
전북조각회전, 오궁리 미술관, 임실
- 1998 원불교미술제, 한림갤러리, 대전
원형조각회전, 전북미술관, 전주
전북조각회전, 송리문화예술회관, 익산
- 1997 오산미술 90년전, 덕원미술관, 서울
한국현대조각회전, 토탈 갤러리, 장흥
원불교 미술제, 라인문화관, 광주
한국, 97신형상전, 덕원미술관, 서울

- 원광 미술대학 교수전, 원광대미술관, 익산
대한민국 종교미술제, 한가람미술관, 서울
공공프로젝트 – 어반 비전, 중외공원, 광주
- 1996 제 27회 홍익조각회전, 미술회관, 서울
제 29회 한국현대조각회전 정신과 물질-그 중립적 위상, 미술회관, 서울
전북야외조각전, 덕진공원, 전주
원광 미술대학 교수전, 원광대미술관, 익산
대한민국환경조각대전, 서동 조각공원, 익산
한중미술교류전, 원광대미술관, 익산
원형조각회전, 소리문화예술회관, 익산
제 6회 대한민국 종교미술전, 한가람미술관, 서울
미술인 100인 초대전, 일민미술관, 서울
- 1995 원광 미술대학 교수전, 원광대미술관, 익산
제 28회 한국현대조각회전, 미술회관, 서울
전북조각회전, 전북예술회관, 전주
한국미술교류전, 노신미술대학 미술관, 선양, 중국
- 1994 민촌 미술전, 민촌아트센터, 전주
한국현대조각회전, 미술회관, 서울
원불교 미술회전, 전북예술회관, 전주
남도조각회 초대전, 조흥문화관, 광주
재전북 홍익미대 동문전, 전북예술회관, 전주
- 1993 비무장지대 예술문화운동 작업-날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현대조각회전, 공평아트센터, 서울
전북조각회전, 전북예술회관, 전주
원형조각회전, 전북예술회관, 전주
- 1992 현대미술 초대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한국현대미술, 새갤러리, 서울
MBC 한국현대조각초대전, 춘천MBC, 춘천
IAA 서울 기념전, 한가람미술관, 서울
- 1991 조각의 힘전, 갤러리아 미술관, 서울
비무장지대 예술문화운동 작업 FRONT DMZ, 한가람미술관, 서울
- 1990 아시아 미술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오늘의 얼굴전, 갤러리아 미술관, 서울
이미지 현상전, 미술회관, 서울

- 1989 한국현대미술-80년대의 정황전, 동숭아트센터, 서울
제3회 아시아 미술제, 후쿠오카시 미술관, 후쿠오카, 일본
80년대의 현상미술전, 금호미술관, 서울
인간 · 생각 · 오늘 초대전, 온다라미술관, 전주
- 1988 전북조각회 그룹전, 전북예술회관, 전주
- 1987 한국현대조각회 초대전, 연희갤러리, 서울
- 1986 조각가 100인 초대전, 관훈갤러리, 서울
- 1980 제 6회 서울현대미술제, 미술회관, 서울
제 3회 중앙미술대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조각 11인전, 미술회관, 서울
- 1979 제 1회 동아미술제,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 1978 청년작가입체전, 청년미술회관, 서울
제3회 부산현대미술제, 부산시민회관 전시장, 부산
- 1977 청년미술조각 21인전, 청년작가회관, 서울
77-78전, 청년작가회관, 서울
제 7회 홍익조각회전, 청년작가회관, 서울
제 1회 시형조각회전, 청년작가회관, 서울
청년작가회관개관기념전, 청년작가회관, 서울
- 1975 '오늘' 미술그룹전, USIS, 서울

소장

- 군산 국립의료원, 군산
군산 바다조각공원, 군산
교보생명빌딩, 익산
유니세프, 서울
익산 서동 조각공원, 익산
전북 미술회관, 전주
후쿠오카시 미술관, 후쿠오카, 일본

7. 작가 약력: 윤석남

윤석남

1939 만주 출생

현재 서울에서 거주하며 경기도 화성에서 작업

학력

1984 뉴욕 프랫 인스티튜트 그래픽 센터 수료

뉴욕 아트 스튜던트 리그 오브 뉴욕 수료

1967 성균관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수료

주요 개인전

2023 제23회 이인성미술상 수상자전: 윤석남, 대구미술관, 대구

2022 제주여성독립운동가, 제주여성역사문화전시관, 제주

2021 내가 되는 그림, 동탄복합문화센터 동탄아트스페이스, 화성

윤석남: 싸우는 여자들, 역사가 되다 - 역사를 뒤흔든 여성 독립운동가 14인의 초상, 학고재, 서울

2019 벚들의 초상을 그리다, OCI미술관, 서울

2018 윤석남, 학고재, 서울

해움미술관, 수원

2017 기억공작소 II: 사람과 사람 없이 - 윤석남, 봉산문화회관, 대구

마침내 한 잔의 물이 되리라, 자하미술관, 서울

2016 빈 방, 학고재 상하이, 상하이, 중국

2015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가마쿠라 갤러리, 가마쿠라, 일본

2015 SeMa Green: 윤석남 - 심장,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3 나는 소나무가 아닙니다, 학고재, 서울

2011 핑크룸 5,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2009 부산아트센터, 부산

학고재, 서울

2008 윤석남 1,025: 사람과 사람 없이, 아르코미술관, 서울

2004 열린화랑(김재선갤러리), 부산

2003 늘어나다, 일민미술관, 서울

가마쿠라 갤러리, 가마쿠라, 일본

1998 가마쿠라 갤러리, 가마쿠라, 일본

- 1997 빛의 파종, 조선일보 미술관, 서울; 아트 스페이스 서울, 서울; 학고재, 서울
- 1996 가마쿠라 갤러리, 가마쿠라, 일본
조현화랑, 부산
- 1993 어머니의 눈, 금호갤러리, 서울
- 1982 미술회관, 서울

주요 단체전

- 2024 함(咸): Sentient Beings, 학고재, 서울
2024 부산비엔날레(예정), 부산
- 2023 신/여성의 탄생, 자하미술관, 서울
내가 그린 여자들, 한국여성재단, 서울
헬로! 펫: 또 하나의 가족,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성남
시간의 두 증명 - 모순과 순리, 서울대학교미술관, 서울
- 2022 움직이는 달 - 다가서는 땅, 제주비엔날레, 제주
밀도, 반도문화재단, 화성
우리, 할머니, 탈영역우정국, 서울
옴니버스, 뮤지엄 산, 원주
- 2021 덕수궁 프로젝트 2021: 상상의 정원, 덕수궁 정원 및 전각, 서울
오노프,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이마 픽스 2021, 일민미술관, 서울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오채찬란 모노크롬 - 생동하는 수목의 새로운 출발,
목포문화예술회관, 목포
리컨스트럭션, 카르마 인터내셔널, 취리히, 스위스
한국 초상화 기법의 유사성과 그 족적, 샌프란시스코 아시아 미술관, 샌프란시스코, 미국
바람보다 먼저,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수원
- 2020 BMA 소장품 하이라이트2 - 우리는 모두가 위대한 혼자였다,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우리가 지나쳐 온 그녀들의 공간, 이화여자대학교 ECC 대산갤러리, 서울
내 나니 여자라, 수원시립아이파크미술관, 수원
조각의 아름다움, 모란미술관, 남양주
- 2019 제6회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 공생도시, 안양파빌리온, 안양
역단(易斷)의 풍경, 자하미술관, 서울
미술여행2 여름프로젝트 - 종이 충격, 양평군립미술관, 양평
한국근현대조각 100주년_한국 현대조각의 단면,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서울
소화(素畵) - 한국근현대드로잉, 소마미술관, 서울

- 세상에 눈뜨다: 아시아 미술과 사회 1960s-1990s,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2018 세계의 초상화들: 한국, 내셔널포트레이트갤러리, 스미소니언 박물관, 워싱턴 D.C., 미국
낙원의 이편, 안양박물관, 안양
오늘의 여성미술, 양평군립미술관, 양평
- 2017 윤석남, 방정아 – 두 엄마, 신세계갤러리 센텀시티, 부산
보고 싶은 얼굴, 이한열기념관, 서울
아시아 여성미술가들, 전북도립미술관, 완주
- 2016 한반도의 사실주의,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뮤지엄 카젠 아트센터, 워싱턴 D.C., 미국
사회 속 미술 – 행복의 나라,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 서울
조각적 전회, 모란미술관, 남양주
동시대 아티스트들의 표현, 도쿠시마시현립근대미술관, 도쿠시마, 일본
- 2015 처음으로 사랑한 사람, 어머니, 제주도립미술관, 제주
코리아 투모로우 2015, 성곡미술관, 서울
용한점집, 자하미술관, 서울
미술관 동물이야기, 포항시립미술관, 포항
- 2014 마음의 기억 – 이너 보이스, 단원미술관, 안산
레트로_’86~’88 “한국 다원주의 미술의 기원”, 소마미술관, 서울
비엔날레 아카이브 – 한국 현대미술 비엔날레 진출사 50년, 부산문화회관, 부산
제10회 광주비엔날레: 터전을 불태우라,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광주
한국의 초상미술 – 기억을 넘어서, 전북도립미술관, 완주
2014 태화강 국제 설치미술제 다리, 연결된 미래, 울산교, 울산
선물,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2013 누락된 기록 – 어느 위안부 할머니의 기억, 복합문화공간 예무, 서울
마음해인아트프로젝트2013, 해인사, 합천
제3회 인천 평화 미술 프로젝트, 2013 정전60년 특별 기획전 백령도 525,600 시간과의 인터뷰,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어느 노병의 이야기 – 60년의 기억, 130년의 우정, 아시아하우스, 런던, 영국
인물 파노라마, 전북도립미술관, 완주
한국현대미술의 흐름 VI – 여성주의, 김해문화의전당 윤슬미술관, 김해
가족이 되고 싶어요 – 반려동물 이야기, 경기도미술관, 안산
탐하다, 경남도립미술관, 창원
- 2012 리버풀 비엔날레 테라갤럭시아, 리버풀 존무어대학 코퍼러스힐 빌딩, 리버풀, 영국
우먼 인-비트윈: 아시아 여성작가 1984-2012, 후쿠오카아시아미술관, 후쿠오카, 일본
한국 근현대미술 특별기획 – 여기 사람이 있다,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 모성,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서울
- 한국현대미술_거대서사1,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2011 창·창·인·생 創·創·人·生, 경기도미술관, 안산
- 삶과 풍토, 대구미술관, 대구
- 조각가의 드로잉, 소마미술관, 서울
- 제1회 인천 평화 미술 프로젝트, 분쟁의 바다 화해의 바다, 인천아트플랫폼, 인천
- 가인(佳人) - 동양미술 속의 아름다운 사람들,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서울
- 비형식의 논증, 자하미술관, 서울
- 코리안 랩소디: 역사와 기억의 몽타주, 삼성미술관 리움, 서울
- 2010 워킹 맘미아: 그녀들에게는 모든 곳이 현장이다, 국립여성사전시관, 서울
- 한국드로잉30년: 1970-2000, 소마미술관, 서울
- 춘추(春秋), 학고재, 서울
- 강진 셀라돈 아트 프로젝트 2010_강진에서 청자를 만나다, 강진청자박물관, 강진
- 경기도의 힘, 경기도미술관, 안산
- 2009 거울아, 거울아 - 그림 속 사람들 이야기, 국립현대미술관 어린이미술관, 과천
- 루씨와 오렌지미술관, 헬로우뮤지움, 서울
- 2009 평화미술제 - 대지의 꽃을 바다가..., 제주현대미술관, 제주
- 예술의 새로운 시작 - 신호탄,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2008 언니가 돌아왔다, 경기도미술관, 안산
- 페미니즘 여성작가 3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서울
- 이중섭미술상 20년의 발자취 - 역대 수상작가 20인, 조선일보 미술관, 서울
- 데일리 라이프 인 코리아, 퀸즈갤러리, 방콕, 태국
- 2007 경기, 1번 국도, 경기도미술관, 안산
- 2006 여성·일·미술 - 한국미술에 나타난 여성의 노동,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서울
- 상:상의 힘, 고려대학교 박물관, 서울
- 2005 광복60주년기념 한국미술100년 (1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쿨&웜, 성곡미술관, 서울
- 2004 금호미술관 개관 15주년 기념전, 시선의 발현과 전개, 금호미술관, 서울
- 찾아가는 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일상이 담긴 미술,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 정지와 움직임, 서울올림픽미술관, 서울
- 지겐-서울-지겐-서울, 지겐란트박물관, 지겐, 독일
- 룩 & 씨 - 엡슬루트 랜드스케이프, 성곡미술관, 서울
- 평화선언 2004 세계 100인 미술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23인의 페미니즘, 한국미술관, 용인
블루, 가마쿠라 갤러리, 가마쿠라, 일본
보더라인 케이스스 경계선상의 여성들, A.R.T., 도쿄, 일본
- 2003 매달다, 가마쿠라 갤러리, 가마쿠라, 일본
우리시대 삶과 해학, 세종문화회관, 서울
한독 여성 작가 교류전 - 여자의 열두 계절, 문화일보 갤러리, 서울
조국의 산하 - 반전 · 평화, 대안공간 풀, 서울
한국현대조각특별전, 조각이란 무엇인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 2002 제2회 여성미술제, 동아시아 여성과 역사, 서울여성플라자, 서울
또 다른 미술사: 여성성의 재현,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서울
민족미술 20년, 청주예술의전당, 청주
- 2001 오월정신 "행방불명", 광주시립미술관, 광주
가족,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공상과 창조 III, 가족 - 한국현대미술, 가스가이시민문화회관, 가스가이, 일본
- 2000 제3회 광주비엔날레: 인간(人+間), 광주비엔날레 전시관, 광주
인물로 보는 한국미술, 호암미술관, 서울
제12회 시드니 비엔날레, 뉴사우스웨일스주립미술관, 시드니, 호주
- 1999 99 여성미술제 - 팔쥬들의 행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90년대 미술의 정황, 엘렌 김 머피 갤러리, 서울
Korea+JAALA - 동북아와 제3세계 미술,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이중섭미술상 10년의 발자취 - 역대 수상작가 10인, 조선일보 미술관, 서울
몽유금강夢遊金剛_그림으로 보는 금강산 300년, 일민미술관, 서울
- 1998 세계인권선언 50주년 기념전,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제1회 타이베이 비엔날레 '욕망의 장소', 타이베이 시립미술관, 타이베이, 대만
전통과 새로운 형태: 한국현대미술, 하트퍼드 대학 조셀로프 갤러리, 하트퍼드, 미국
일본군 위안부 기념관 건립기념전, 위안부 기념관, 나눔의 집, 광주
서울올림픽 10주년 기념 야외조각 심포지엄, 올림픽조각공원, 서울
- 1997 우리시대의 초상 - 아버지, 성곡미술관, 서울
대결 III, 벨란센터, 토리노, 이탈리아
- 1996 제8회 조국의 산하, 강 - 내일로 흐르는 삶의 도도함처럼,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90년대의 한국미술 - 등신대(等身大) 이야기, 도쿄국립근대미술관, 도쿄; 국립국제미술관, 오사카, 일본
제2회 아시아 태평양 현대미술 트리엔날레, 퀸즈랜드미술관, 브리즈번, 호주
아시아의 현대미술 - 전통과 긴장, 아시아 소사이어티, 뉴욕, 미국

- 한국 모더니즘의 전개 1970-1990: 근대의 초극, 2부 모더니티·대중·표현, 금호미술관, 서울
- 1996 인간의 해석, 갤러리사비나, 서울
미술로 본 20세기 한국인물, 노화랑, 서울
- 1995 한국현대미술 15인 - 호랑이의 꼬리, 팔라초 벤드라민 아이 카르미니, 베니스, 이탈리아
제6회 작은 조각 트리엔날레: 유럽 - 동아시아, 슈드베스트엘비포럼, 슈투트가르트, 독일
한국(韓國), 100개의 자화상(自畫像), 조선(朝鮮)에서 현대(現代)까지, 서울미술관, 서울;
국립청주박물관, 청주
씩, 아트선재센터, 서울
한국 미술 '95 질·량·감,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해방50년 역사미술,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프리미티비즘, 모란미술관, 남양주
95 한국 여성미술제,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한국현대미술, 중국미술관, 베이징, 중국
- 1994 자존의 길 Ⅱ, 금호갤러리, 서울
기술과 정보 그리고 환경의 미술, 엑스포 과학공원 재생조형관, 대전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전시회 - 새야 새야 파랑새야,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민중미술 15년: 1980-1994,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여성, 그 다름과 힘, 한국미술관, 서울
- 1993 태평양을 건너서: 오늘의 한국미술, 퀸즈미술관, 뉴욕; 금호갤러리, 서울
기대와 예감, 박영덕화랑, 서울
- 1992 제6회 여성과 현실, 그림마당 민, 서울
- 1988 여성 해방시와 그림의 만남, 그림마당 민, 서울
- 1987 제1회 여성작가 40인의 그림잔치 - 여성과 현실, 무엇을 보는가?, 그림마당 민, 서울
87인간, 그로리치화랑, 서울
- 1986 제2회 시월모임, 반에서 하나로, 그림마당 민, 서울
- 1985 제1회 시월모임, 관훈미술관, 서울
- 1982 제1회 82 인간 11인, 관훈미술관, 서울
- 수상**
- 2022 제23회 이인성미술상, 대구미술관, 대구
- 2019 국민훈장 모란장, 여성가족부, 서울
- 2015 제29회 김세중조각상, 재단법인 김세중기념사업회, 서울
- 2007 제4회 고정희상, (사)또하나의문화, 서울

-
- 1997 국무총리상, 서울
 - 1996 제8회 이중섭미술상, 조선일보사, 서울

소장

-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과천
- 국립여성사전시관, 고양
- 경기도미술관, 안산
- 대전시립미술관, 대전
- 부산시립미술관, 부산
-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 아르코미술관, 서울
- 금호미술관, 서울
- 리움미술관, 서울
- 일민미술관, 서울
- OCI미술관, 서울
- 고려대학교박물관,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서울
- 올림픽공원, 서울
- 쌈지스페이스, 서울
- 나눔의 집, 광주
- 테이트 컬렉션, 런던, 영국
- 벨란센터, 토리노, 이탈리아
- 오리건주립대 조던슈니처미술관, 오리건, 미국
- 퀸즈랜드 미술관, 브리즈번, 호주
- 타이베이 시립미술관, 타이베이, 대만
- 후쿠오카시 미술관, 후쿠오카, 일본
- 버거 컬렉션, 홍콩
- 도쿠시마시현립근대미술관, 도쿠시마, 일본
- 도치기현립미술관, 우츠노미야, 일본
- 미에현립미술관, 츠, 일본
- 가마쿠라 갤러리, 가마쿠라, 일본
- 스타트 뮤지엄, 상하이, 중국